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rch 2026 Issue | Vol. 18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필리핀과 한국 정상, 협력 강화 다짐 — page 1
- 대통령궁: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 4일 근무제 제안, 마르코스 검토 가능 — page 1-2
- 필리핀 중앙은행, 현금 인출 한도 100만 페소로 상향 — page 2-3
- 필리핀 노동부, 온라인 신고 도입으로 건설 안전 규정 준수 절차 간소화 — page 3
- 중동 전쟁, 세계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아넣을 위험 — page 4-5
- UBS, 올해 필리핀 경제성장률 5~6% 목표 범위의 하단 전망 — page 5-6
- 우선 투자 분야에 대한 한국 투자 유치 모색 — page 6-7

UPCOMING EVENT

- [March 23, 2026] KCCP 제31회 연례 정기 총회 — page 7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필리핀과 한국 정상, 협력 강화 다짐

March 04, 2026 | Reuters | BusinessWorld

마닐라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화요일 마닐라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만나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방문 일정으로 마닐라를 찾았다.

-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측이 “지정학적 상황 전개에서 커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양 분야를 포함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 필리핀과 한국은 조선, 원자력 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 이 대통령은 또한 양국이 인프라와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필리핀이 핵심 광물과 공급망 분야에서도 함께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두 정상은 회담에서 중동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 군 현대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국은 디지털 기술, 특정 방위 장비 조달, 농업, 지식재산권, 외국어 교육, 문화, 경찰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President Lee Jae 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Ferdinand R. Marcos Jr. shake hands at the President's Hall in Malacañan Palace during their joint press statement, Mar. 3, 2026.—PPA POOL/ MARIANNE BERMUDEZ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he-nation/2026/03/04/734107/philippines-south-korea-leaders-pledge-closer-cooperation-as-geopolitical-uncertainty-mounts/>

대통령궁: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 4일 근무제 제안, 마르코스 검토 가능

March 04, 2026 | Dexter Cabalza | Philippine Daily Inquirer



Palace press officer Claire Castro.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 Facebook

필리핀 마닐라 — 중동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주 4일 근무제 도입 제안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다고 말라카냥궁이 밝혔다.

수요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궁 공보 담당자 클레어 카스트로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되고 더 악화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현재로서는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확대될 경우 대통령이 이 제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아직 마르코스 대통령의 내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Cont. page 2]

대통령궁: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 4일 근무제 제안, 마르코스 검토 가능

[Cont. from page 2]

세르윈 가차리안 상원의원은 앞서 주 5일 근무를 4일로 압축하거나 재택근무 제도를 확대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2년 공무원위원회(CSC) 회람 제6호에 따라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 근무제가 허용되어 있다.

민간 부문 근로자의 경우, 2018년에 제정된 공화국법 제11165호(원격근무법, Telecommuting Act)에 따라 대체 근무 방식이 허용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월요일, 중동 지역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몇 주 동안 석유 제품 부족이 예상되면서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비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위원회(IAEECC)는 정부 기관들이 연료 소비를 “최소 10% 줄일 것”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jpv

[Source: https://newsinfo.inquirer.net/2190400/palace-marcos-may-study-4-day-work-week-proposal-to-save-energy](https://newsinfo.inquirer.net/2190400/palace-marcos-may-study-4-day-work-week-proposal-to-save-energy)

필리핀 중앙은행, 현금 인출 한도 100만 페소로 상향

March 04, 2026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강화된 고객확인(EDD)이 적용되는 현금 인출 기준 금액을 100만 페소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안전장치는 유지하면서도 일반적인 대규모 거래에 대한 규정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회람(Circular) 제1230호에 따라 통화위원회(Monetary Board)는 고객 현금 거래에 대한 규정을 재조정하며 기준 금액을 기존 50만 페소(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에서 100만 페소로 상향했다. 이번 회람은 2025년 9월에 발행되어 처음으로 50만 페소 상한선을 설정했던 회람 제1218호의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BSP는 이번 조정이 위험 모니터링과 은행 및 업계 단체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전 기준을 초과하는 합법적인 현금 거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여기에는 급여 지급, 대출 실행, 프로젝트 기반 자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중앙은행은 “이번 인상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국가위험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와 감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현금 거래에 대한 강력한 위험 기반 안전장치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데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회람에서 규제 당국은 은행 및 기타 BSP 감독 금융기관(BSFI)과의 현금 거래에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규정집(Manual of Regulations for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의 제929/923-Q 조항이 새로운 기준 금액을 반영하도록 개정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BSFI는 100만 페소를 초과하는 고객 현금 지급에 대해 위험 기반 강화 고객확인(EDD)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확산 자금 조달 대응(AML/CTF/PF)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100만 페소 기준은 “단일 거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같은 영업일 내 여러 거래의 합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명시됐다. 기준 금액에 도달할 경우 EDD는 고객 단위에서 수행되며, 이미 해당 고객에게 적절한 EDD 조치가 적용된 경우 각 거래마다 별도로 EDD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이는 예금자가 100만 페소까지 현금을 인출할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거래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ont. page 3]



Under Circular 1230, the Monetary Board approved the recalibration of regulations on large value cash transactions, increasing the threshold to P1 million from P500,000 or its equivalent in foreign currency. The new circular amends provisions under Circular 1218 issued in September 2025, which first set the P500,000 ceiling.

Businessworld / File

필리핀 중앙은행, 현금 인출 한도 100만 페소로 상향

[Cont. from page 2]

정기적으로 대규모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업의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는 거래별이 아닌 고객 단위 기준으로 실시되며,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영된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위험 기반 감독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번 회람은 은행 및 기타 BSP 감독 금융기관(BSFI)이 더 엄격한 내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회람은 “위험 기반 고객확인 조치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확산 자금 조달 위험 평가(ML/TF/PF) 또는 고객의 재무 프로필에 근거해 더 낮은 현금 거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BSP는 금융기관이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할 수 없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제차 강조했다.

회람에 따르면 “BSFI가 EDD 절차를 만족스럽게 완료하지 못했거나, 해당 절차를 수행할 경우 고객에게 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릴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서(STR)**를 제출하고 해당 계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거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대규모 또는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보고한 경보, 위험 신호(red flags), 의심 지표, 그리고 관련 유형 등을 고려해 STR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50만 페소 기준은 지난해 9월 도입됐으며, 자금세탁을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이 불법 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번 새로운 회람은 필리핀 관보(Official Gazette) 또는 필리핀에서 발행되는 일반 신문에 공표된 후 15일이 지나면 시행된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6/03/04/2511776/bsp-raises-cash-withdrawal-threshold-pl-million](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6/03/04/2511776/bsp-raises-cash-withdrawal-threshold-pl-million)

필리핀 노동부, 온라인 신고 도입으로 건설 안전 규정 준수 절차 간소화

March 04, 2026 | William B. Depasupil | The Manila Times

The Manila Times®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건설 산업에서 요구되는 안전 규정 제출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정 준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비엔네니도 라게스마 노동장관은 화요일, 모든 건설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필수적인 안전 보호 조치가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 2026년 제3호 노동 자문(Labor Advisory 03, Series of 2026)을 발령한 데 이어 건설 안전보건 프로그램(CSHP) 제출 절차를 현대화했다고 말했다.

라게스마 장관은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규정 준수 절차를 더 쉽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CSHP 제출 절차의 디지털화는 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국 건설 노동자의 복지를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문에 따르면 주택 또는 소규모 상업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는 계약자, 하도급업자 또는 사업주는 이제 DOLE 온라인 준수 포털(<https://reports.dole.gov.ph/>)을 통해 CSHP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출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사항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신청자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CSHP 접수 확인을 포함한 알림을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 받게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CSHP의 제출, 평가, 처리 및 승인 절차는 모두 무료다. 또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제출 내용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것을 강력히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완전한 CSHP 제출에 대한 이메일 확인을 받은 후, 신청자는 프로그램 사본을 출력하고 2025년 제252호 부령(Department Order 252, Series of 2025)에 규정된 의무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CSHP를 게시해야 한다.

라게스마 장관은 “이번 디지털 전환은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근로자 안전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더 넓은 노력의 일환”이라며 “모든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신속히 규정을 준수해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이번 발령이 **2023년 제6호 노동 자문(Labor Advisory 06, Series of 2023)**을 대체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에 대한 DOLE의 지속적인 의지와 규제 절차 개선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6/03/04/news/national/dole-streamlines-construction-safety-compliance-with-online-filing/2292380](https://www.manilatimes.net/2026/03/04/news/national/dole-streamlines-construction-safety-compliance-with-online-filing/2292380)

중동 전쟁, 세계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아넣을 위험

March 03, 2026 | Agence France-Presse | ABS-CBN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중동 지역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높은 물가 상승과 둔화된 경제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문제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석유 충격이 발생할까?

이번 분쟁으로 인해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여러 선박이 공격을 받으면서 통항이 크게 위축됐다.

월요일 국제 유가도 급등했다. 국제 기준 유가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그리니치 표준시(GMT) 14시 10분 기준 배럴당 79.30달러로 약 9% 상승했다.

유가는 이날 한때 배럴당 80달러를 잠시 넘어섰으며, 연초의 배럴당 61달러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수준이다.

경제학자 실뱅 베르생제르(Sylvain Bersinger)는 이번 전쟁이 “1973년과 1979년의 석유 파동, 그리고 2022년의 가스 가격 충격에 이어 세 번째 석유 충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고 말했다.

유럽의 기준 천연가스 가격은 월요일에 50% 이상 급등했다.

그는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과거 2008년에는 140달러 이상, 2010년대에는 100달러 이상까지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준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 야누스 헨더슨(Janus Henderson)의 애덤 헛츠(Adam Hetts)는 유가가 분명 상승하겠지만 상승 폭은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무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세계 무역 시스템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분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걸프 지역 영공 폐쇄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간 항공 운항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무역신용보험사 코파스(Coface)의 정치 리스크 연구 책임자 뤼벤 니자르(Ruben Nizard)는 이번 위기가 해상 운송 비용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고 무역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볼 때 이는 높은 물가 상승과 미약하거나 거의 없는 경제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나틱시스(Natixis) 은행의 경제학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 시장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흐름과 전반적인 경제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ING 은행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분쟁이 “가장 좋지 않은 시점에 무역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들은 특히 “중국이 이번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해군 전략연구센터(Centre for Strategic Studies) 연구부 책임자인 시릴 푸아리에-쿠탕세(Cyrille Poirier-Coutansais)도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석유에 특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의 공장을 계속 가동할 만큼 충분한 연료가 확보될 수 있을지가 관건” 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실뱅 베르생제르는 이번 사태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 가스 가격 충격보다는 작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특히 프랑스가 경기 침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듯 유럽 국채 금리는 월요일 상승했다.

유로존 기준 지표인 독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금요일 2.64%에서 월요일 오후 거래에서 2.70%로 상승했다. [Cont. page 5]



Plumes of smoke rise following reported explosions in Tehran on March 1, 2026. Atta Kenare, AFP

중동 전쟁, 세계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아넣을 위험

[Cont. from page 4]

장기 전쟁의 위험은 무엇인가?

분쟁의 강도와 지속 기간은 그 영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ING 은행의 경제학자들은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비용 상승, 물류 차질, 그리고 전반적인 신뢰 충격이 결합되어 세계 무역 규모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상황이 세계 경제가 여전히 관세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의 영향을 소화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파스(Coface)의 뤼벤 니자르(Ruben Nizard)는 브렌트유 가격이 장기간 약 15달러 상승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약 0.2%포인트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은 약 0.5%포인트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러한 영향이 “세계 경제 성장세가 비교적 취약한 상황” 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abs-cbn.com/news/business/2026/3/3/mideast-war-risks-sending-global-economy-into-stagflation-0847>

UBS, 올해 필리핀 경제성장률 5~6% 목표 범위의 하단 전망

March 05, 2026 | Katherine K. Chan | BusinessWorld



PHILSTAR FILE PHOTO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홍수 통제 사업 관련 스캔들로 위축됐던 투자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올해 정부가 제시한 5%~6% 성장 목표의 하단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UBS 투자은행 글로벌 리서치가 밝혔다.

UBS는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성장률은 현재 저점에 가까운 수준이며, 향후 두 분기 동안 분기별 성장 모멘텀이 1.4%까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치는 지난해 기록한 4.4%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투자, 가계 소비, 정부 지출에 영향을 미친 부패 스캔들로 인해 둔화됐다.

이는 또한 3년 연속 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목표 범위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UBS는 공공 투자가 올해 초 반등한 뒤 연말로 갈수록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UBS는 “수정된 전망에서 우리는 공공 투자가 점진적이고 후반부에 집중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며 2026년 1분기에는 소폭 증가가 시작되고, 2026년 4분기에는 지출이 2025년 2분기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GDP의 투자 부문인 총자본형성(Gross Capital Formation)은 지난해 2.1%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10.9% 급감해 4년여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경제 당국은 지난해 홍수 통제 사업 관련 부패 의혹이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동남아시아 전반에서 UBS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 주요 경제국이 올해 약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UBS 투자은행 글로벌 리서치의 ASEAN 및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이스 림(Grace Lim)은 성명에서 “이 지역은 세계 제조업 가치사슬에 깊이 통합되어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내수 시장의 지원을 받고 있다” 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성장 여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가계 소비가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태국과 필리핀에서는 민간 투자 증가가 진행 중이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기술 관련 수출의 강한 경쟁력이 지속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주요 외화 유입원인 해외 송금(remittances) 역시 경제를 어느 정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글로벌 충격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트로폴리탄 은행 앤드 트러스트(Metrobank)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니콜라스 안토니오 T. 마파(Nicholas Antonio T. Mapa)는 중동 전쟁이 성장률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경제는 성장 둔화에 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며 “물가는 목표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도 종료됐다” 고 밝혔다.

또한 석유 수입 비용 증가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페소-달러 환율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쟁은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금리를 인상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거의 2년에 걸친 통화 완화 사이클의 종료를 의미할 수 있다.

[Cont. page 6]

UBS, 올해 필리핀 경제성장률 5~6% 목표 범위의 하단 전망

[Cont. from page 5]

메트로뱅크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안토니오 T. 마파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고,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머물 것이며, 2026년 중앙은행의 다음 조치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중앙은행 통화위원회(Monetary Board)는 지난달 역환매조건부채권(Reverse Repurchase) 금리를 25베이스포인트(bp) 인하해 4.25%로 조정했다. 이는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4년 8월 통화 완화가 시작된 이후 총 225bp 인하된 것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DBS 은행은 필리핀이 동남아 지역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DBS의 유로존·인도·인도네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디카 라오(Radhika Rao)와 ASEAN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추아 한 텡(Chua Han Teng)은 보고서에서 “ASEAN 6개국 가운데 순 석유 무역수지의 부정적 영향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가장 크지만, 가격 상승 압력이 실제 물가로 전이되는 영향은 태국과 필리핀에서 특히 두드러질 것” 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역시 중동 전쟁이 몇 주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시장에서 유가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1월 이후 주유소 판매 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6.70페소, 디젤 9.40페소, 등유 7.70페소 각각 상승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6/03/05/734279/ubs-sees-philippine-growth-at-low-end-of-5-6-goal-this-year/>

우선 투자 분야에 대한 한국 투자 유치 모색

March 05, 2026 | Samuel P. Medenilla | BusinessMirror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필리핀 경제를 보다 역동적이고 회복력 있게 만들기 위해 자동차 제조, 전자,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우선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파사이시티(Pasay City)에서 열린 필리핀-한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필리핀 기업과 한국 기업 간에 새로 체결된 7건의 양해각서(MOU)도 발표했다.

그는 이러한 우선 산업 분야가 필리핀 경제를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구조로 만들기 위한 현 정부의 목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포럼에 참석한 필리핀 상공회의소(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와 한국경제인협회(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회원들에게

“우리가 함께한다면 양국이 자립적이고 경쟁력을 갖추며 미래의 요구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한 개혁 정책들이 더 많은 한국 기업의 필리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는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 성장이 모두에게 공유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가운데 적격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CREATE MORE 법’, 금융 상품 전반의 세율을 합리화하는 자본시장 효율성 촉진법(Capital Markets Efficiency Promotion Act), 그리고 전략적 투자에 대한 ‘그린 레인(Green Lanes)’ 을 도입한 2023년 제18호 행정명령을 언급했다.

또한 스타트업의 자본 요건을 완화한 개정 외국인투자법(Amended Foreign Investments Act)과 외국 소매업체의 자본 요건을 크게 낮춘 개정 소매무역 자유화법(Amended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도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부가 최소 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적격 프로젝트’ 에 500억 페소를 배정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은 역동적이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된 전략을 형성한다” 고 말했다. [Cont. page 7]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우선 투자 분야에 대한 한국 투자 유치 모색

[Cont. from page 6]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 투자를 검토하도록 설득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선, 원자력 에너지, 항공우주, 핵심 광물, 공급망, 유통, 헬스·웰니스 분야에서 체결된 **7건의 기업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체결된 MOU 가운데 하나는 한국수력원자력(Korea Hydro & Nuclear Power)과 한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Korea)이 마닐라전력회사(Meralco)와 함께 신규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 및 금융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협약이다.

또 다른 MOU는 HD현대중공업(HD Hyundai Heavy Industries)과 필리핀 기술교육기술개발청(Tesda) 간에 체결된 조선 기술 개발 협력에 관한 것이다.

이 밖에도 삼양식품(Samyang Food Inc.)과 S&R, 한국 의료기기 업체 세라젠크(Ceragem Co. Ltd.)과 벨로 메디컬 그룹(Belo Medical Group), 한국 바이오 기업 제테마(Jetema)와 필리핀 의료장비 제조업체 이노메딕스 트레이딩 코퍼레이션(Innomedics Trading Corporation) 간 협약이 체결됐다.

또한 **한국 항공우주 기업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Perigee Aerospace Inc.)**와 필리핀 우주청(Philippine Space Agency), Ascend, 정보통신기술부(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카가얀 경제특구청(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간 협력 협약도 체결됐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과 필리핀 광산지질국(Mines and Geosciences Bureau) 간 협약도 포함됐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3/05/korean-investments-in-priority-sectors-eyed/>

[UPCOMING EVENT] KCCP's 31st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 March 23, 2026



The poster features a central graphic with a blue and red circular logo above the text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The main title '31st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is written in a large, elegant serif font. Below the title, the date and time 'March 23, 2026 (Monday) 5:30PM' and the location 'Ayala Ballroom, Makati Sports Club' are listed. At the bottom, contact information for R.S.V.P. is provided: 'Ms. Chi and Ms. Sang' and 'info@kccp.ph | 09178015920 & 09271167430'. The background consists of abstract geometric shapes in blue, yellow, and white.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31st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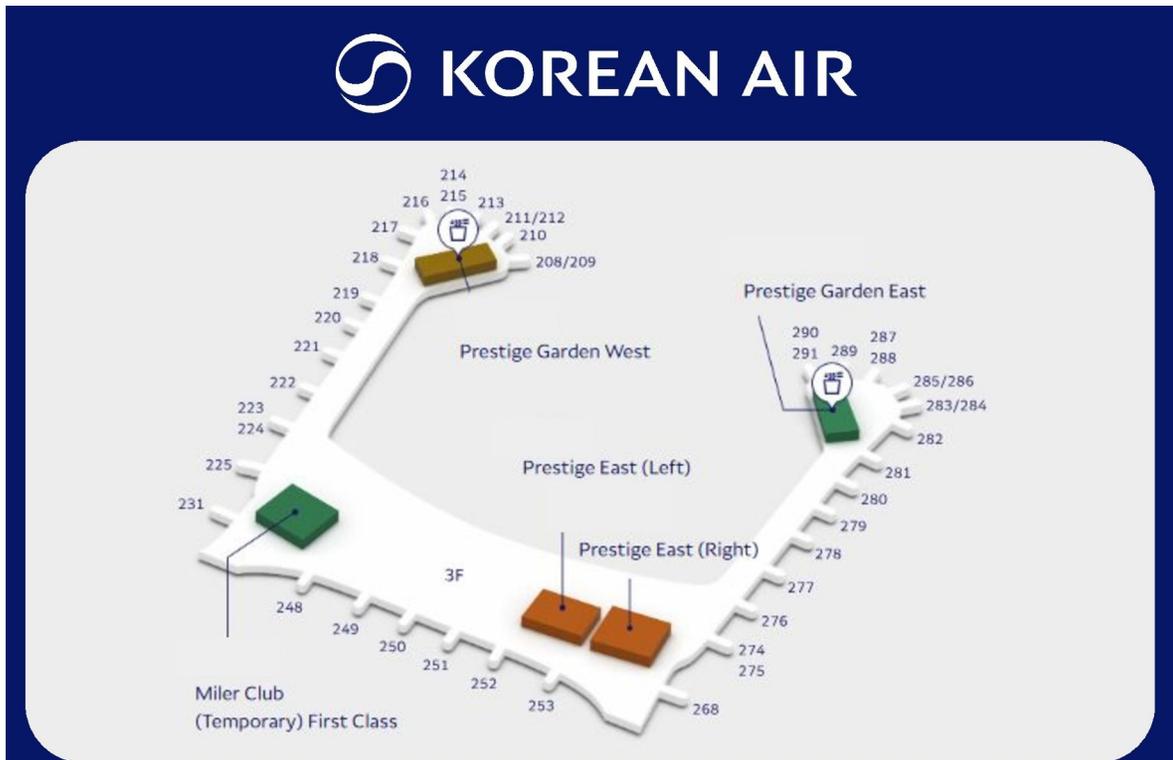
March 23, 2026 (Monday) 5:30PM
Ayala Ballroom, Makati Sports Club

R.S.V.P or For more information:
Ms. Chi and Ms. Sang
info@kccp.ph | 09178015920 & 09271167430

KCCP will hold its **31st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on March 23, 2026 (Monday) 5:30PM at the Ayala Ballroom, Makati Sports Club** located at L.P. Leviste corner Gallardo Sts., Salcedo Village, Makati City This event gathers KCCP's member companies, embassy officials, Korean and local partner organizations and other guests for this important event. KCCP is expecting 120-140 attendees.

The event is also open for sponsorship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event and mileages for sponsorship, please feel free to call KCCP Secretariat at 8885-7342 or 0917-8015920 (c/o Ms. Chi and /or Ms. Sang)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You are invited to the Lounge of Korean Air



Experience our newly redesigned lounge at Incheon Airport, inspired by Korean elegance, featuring live cooking stations, dedicated bartender & more

KOREAN AIR - Regional Office Manila

G/F LPL Plaza Bldg, 124 Leviste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8290-6430 (Local Language); 02-8540-1152 (English 24/7)

Weekdays from 08:30AM-5:30PM

mnlsmr@koreanair.com

www.koreanair.com

